

■ 氣의 병증: 七氣, 九氣, 中氣, 氣痛, 氣逆, 氣鬱 (七情과 연관) / 上氣, 下氣 (升降) / 短氣, 少氣 (出入)

七氣: 喜, 怒, 悲, 思, 憂, 驚, 恐 혹은 寒, 熱, 悲, 怒, 喜, 憂, 愁. 七氣가 서로 간섭하면 답음이 엉겨 숨 같기도 하고 얹은 막 같기도 하며 심하면 매실 씨 같은 것이 인후를 막아 咯不出, 嚥不下 或 胸膈痞滿 或 中滿難食 或 上氣喘急 증상이 나타남.

九氣: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熱(炁)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등의 氣機失調

中氣: 七情의 과도나 분노로 기가 逆上하여 갑자기 쓰러져 인사불성, 牙關緊急 및 수족의 경련이 발생하는 증상. 심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곧 깨어남. 반드시 중풍과 구별해야 하는데, 중풍은 脈浮, 身溫, 口多 증상이 있으나 中氣는 脈沈, 身涼, 口無의 차이가 있음. 중풍은 중기에 사용하는 약을 쓸 수 있지만 중기는 중풍에 사용하는 약 투약 불가.

氣痛: 기의 순환에 이상이 생겨 답음이 멎치면 통증이 생기고 氣가 체표에 막히면 온몸이 쭈시는 것같이 아프거나 부종이 나타남. 上焦에 기가 막히면 心胸의 痞痛이 나타남. 中焦에 기가 막히면 복부와 옆구리에 刺痛이 있다. 下焦에 기가 막히면 腰痛과 산가가 생김.

氣逆: 火邪로 인하여 배에서 때때로 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 기가 가슴에서 逆亂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아무 말도 못 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게 됨. 肺에서 逆亂하면 몸을 굽혔다 짓혔다 하며 천명이 있고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숨을 내쉬. 장위에서 역하면 霍亂이 생기고, 팔다리에서 역하면 사지의 厥冷이 생김. 머리에서 역란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 쓰러지게 됨.

氣鬱: 기가 맺혀서 풀리지 않는 병. 七情이나 혹은 음식으로 인해 진액이 운행되지 못하고 청탁이 서로 섞여 기가 울체하게 되면 積과 痰이 형성되어 더부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함. 기가 울체하면 습이 막히고 이로 인하여 열이 발생 하기 때문에 氣의 병은 부종과 脹滿을 겸함.

上氣: 기가 위로 치밀어 내쉬는 숨이 많고 들이쉬는 숨이 적어서 호흡이 몹시 가쁜 것. 폐에 사기가 있기 때문.

下氣: 기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腸胃의 주리가 막혀 가 장위의 밖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장위를 따라 밖으로 새 나가므로 트림이나 방귀가 나옴.

短氣: 호흡이 짧아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숨이 가쁘고 몹시 짧은 증상.

少氣: 기운이 부족하여 말소리가 미약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cf) 오장의 氣가 실조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心氣가 실조되면 트림이 나고, 肺氣가 실조되면 기침이 나며, 肝氣가 실조되면 말이 많고, 脾氣가 실조되면 신물이 넘어오며, 腎氣가 실조되면 하품이 난다. 六腑의 氣가 실조되어 나타나는 병으로는 膽氣가 실조되면 화를 잘 내고, 胃氣가 실조되어 氣가 역상하면 딸꾹질이 나며, 대장과 소장의 氣가 실조되면 설사가 나고, 방광의 氣가 허약하면 소변을 지리며, 下焦의 기가 실조되면 수기가 넘쳐 부종이 발생한다. (靈樞 九鍼論: 五臟氣 心主噫 肺主咳 肝主語 脾主吞 腎主欠 六腑氣 膽爲怒 胃爲氣逆爲噦 大腸小腸爲泄 膀胱不約爲遺溺 下焦溢爲水)